21

조계산 끝자락의 전통문화 1번지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의 하루

전남 순천

전통문화 1번지 순천, 서산 너머로 해가 저물고 바다로 난 수로를 따라 비추는 석양빛에는 옛 선조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 숨쉰다. 논, 갯마을, 수로, 낮은 구릉 등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그리는 순천의 가장 큰 보물은 단연 '낙안읍성 민속마을'이다. 옛 선조들의 생활상이 온전히 살아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낙안읍성 민속마을. 정겨운 그곳의 돌담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일상을 잊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 서민 생활상을 오롯이 담아내다

순천 조계산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1983년에 국가사적 제302호로 지정, 현재는 조선시대 읍성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선 태조 때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김빈길 장군이 흙으로 축조한 것을 인조 때 돌로 다시 쌓아 지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한다(세종 때 석성으로 증축했다는 이설이 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대개의 성곽이 산이나 해안에 축조된 것에 반해, 평평한 들판에 지어진 평지성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 안에는 동헌, 낙안루, 낙안객사, 돌샘과 주민이 거주하는 크고 작은 초가집 140여 채가 있다. 성밖에도 초가집 50여 채가 더 있어, 총 120세대 220여 명의 주민이 여전히 그곳에서 소박한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다. 흙길을 천천히 따라 걸으면 정겨운 돌담과 싸리문, 장독대가 반기고 큰 눈망울을 끔벅이고 있는 소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조선시대 서민 생활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마치 추억 속 시골마을을 찾은 듯 포근하고 따뜻하다.

성곽에서 바라본 초가 지붕들 위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광경을 보고 있자니 과거와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만이 남는다. 순천시에서는 정다운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현재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는 등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한다.

다양한 매력의 낙안읍성 민속마을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마당

다채롭게 펼쳐지는 체험행사는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또 다른 매력이다. 매일 짚풀공예와 길쌈 등의 전통문화 체험이 상시 운영되는데,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며 천연염색이나 도자기 만들기, 목공예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읍성 내 객사에서 시조창과 살풀이, 가야금산조, 판소리 등의 풍류놀이도 펼쳐진다.

영화, CF, 드라마 등 촬영장으로 인기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보존이 잘 된 탓에 영화, CF, 드라마 등의 촬영장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상도〉, 〈허준〉, 〈날라리 종부뎐〉 등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이곳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담아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류의 중심에 있었던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로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한층 더 늘어났다.

신명나는 민속축제 한마당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보름이면 임경업 장군 비각에서 제를 올리고 널뛰기와 그네뛰기, 성곽돌기 등 다양한 민속행사를 열고 있다. 또한 천고마비의 계절인 매년 가을에 입맛을 자극하는 '남도음식문화축제'를 열고 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찾아가는 길

서울 → 천안논산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승주(선암사)나들목 → 낙안읍성(☎061-749-3347, www.nagan.or.kr)

기타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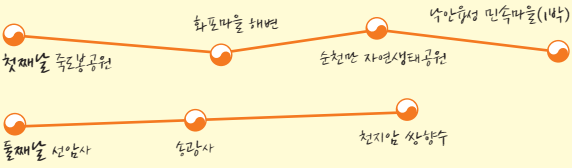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갈대군락지) 순천 시내를 관통하는 동천과 순천시 상사면에서 흘러온 이사천의 합수지점부터 하구에 이르는 3㎞ 쯤의 물길 양쪽은 사람 키보다 훨씬 더 자란 갈대밭으로 뒤덮여 있다. 갈대군락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갈대의 북슬북슬한 씨앗 뭉치가 햇살의 기운에 따라 은빛, 잿빛, 금빛 등으로 채색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다.

선암사 조계산 기슭 동쪽에 자리잡은 선암사는 사찰 전통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절의 하나로 보물 7점 외에도 장엄하고 화려한 대웅전, 팔상전, 원통전, 금동향로, 일주문 등 지방 문화재 12점이 있고, 선암사 본찰 왼편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높이 17m, 넓이 2m에 이르는 거대한 바위에 조각된 마애불을 볼 수 있다.

송광사 조계산 북쪽에 자리한 송광사는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와 더불어 한국 삼보사찰(三寶寺刹)로 불리고 있다. 국사전 등 국보 3점을 비롯하여 하사당, 약사전, 영산전 등 보물 13점, 천연기념물인 곱향나무 쌍향수 등 국가문화재 17점과 지정 국사사리합 등 지방문화재 10점을 포함, 모두 27점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먹거리

산채비빔밥 건강에 좋은 갖가지 산나물들이 어우러져 고소하면서도 향긋한 향이 그만이다. 조계사 인근에서 깔끔한 산채비빔밥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충전하자.

버섯전골 담백하면서도 깊은 육수에 원기회복에 좋은 다양한 버섯이 듬뿍 들어가 사라진 입맛을 돌아오게 만든다. 갖가지 반찬들에서도 넉넉한 인심이 느껴진다.

여행코스